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진기록

총 132톤 판매 7억3000만원 역대급 매출 기록…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31.8% 증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지난 5일을 끝으로 10년래 최고 매출을 올리며 역대급 진기록을 세웠다.

군에 따르면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김장 체험, 택배,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을 통해 총 132톤(절임 배추 96톤, 양념 36톤)을 판매해 7억 3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6억 6천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첫 7억원 돌파로 역대 가장 높은 매출 기록이다.

특히 올해 성과는 목표 매출액 6억 6천만원, 목표 물량 124톤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5억 5천 6백만원) 대비 31.8% 증가한 기록적인 성과이다.

군은 올해 높은 매출 기록의 배경으로 청정 임실 신덕면 고랭지 배추와 임실산 홍고추로 만든 고품질 고폭가 투를 사용한 양념, 10년간 축적된 맛과 품질의 신뢰성을 꼽았다.

절임 배추는 작목반 실명제운영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념은 지역 농가에서 수매한 임실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지난 5일을 끝으로 10년래 최고 매출을 올리며 역대급 진기록을 세웠다.

홍고추를 전문 건조·가공해 만든 고폭가투를 사용한다.

또한, (농)임실앤양념(주)이 전라도 지역 전통 방식에 기반해 생산하고 매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맛을 개선해 온 것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이 같은 신뢰와 품질 덕분에 임실 김장 축제 참여 경험에 있는 소비자들의 재구매·재방문이 지속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확산하면서 사전 주문 기간 중 준비된 물량이 조기 완

판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했다.

실 민 군수는 “높은 성과의 중심에는 절임 배추 생산 농가의 헌신과 소비자를 위해 꾸준히 품질을 개선해 온 (농)임실앤양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축제 이후에도 추가 주문과 내년 김장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완성도 높은 체험프로그램과 품질 향상을 통해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전국 최고의 김장 축제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평가 ‘최우수’

행안부 장관 표창·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운영,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2월 북풍면에 40cm 이상 폭설이 예보됐을 당시, 칠갑마을 주민 2명을 마을회관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또 북풍면에 제2제설 전진기지를 추가 확보하고 열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적 제설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남원성일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남원시는 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남원성일병원과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남원성일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성일병원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센터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풍부한 전문인력과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앞으로 남원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신응급·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체계 구축 △초기 정신건강 문제 발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본격 운영

공개 추첨 통해 이용자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2026년 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예약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추첨으로 최종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2026년 1월과 2월 출산 예정 산모의 접수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고 12월 16일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3월과 4월 출산 예정인 산모의 접수 기간은 1월 1일부터 5일까지로, 1월 6일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산후케어센터 다온은 남원시민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산모와 지리산권 지자체 산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으로 취약계층 및 시민 등 대상별 감면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민은 50% 감면, 전북도민 30%, 지리산권 및 시민자녀 10%, 취약계층 70% 감면된다.

더불어 남원시 산모의 경우 이용료 일부환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은 산모실, 신생아실, 맘카페,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산후 마사지 △산후요가 △소아과·산부인과 건강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 맞춤형 산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순창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6급 팀장 이상과 읍·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강의에서 최영민 군수는 시범사업 선정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 재원 확보 계획, 중장기 전략 등을 직접 설명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며 “행정·복지·경제 전 분야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움직일 때, 이 사업은 순창군의 미

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농어촌기본소득 정책자문위원·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가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했다.

장 교수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국가 정책의 중심이 돌봄·생활서비스·사회적경제·기본소득 등 ‘기본소득’로 이동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순창군을 장류, 힐링, 농촌관광 등 풍부한 지역 자산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 선제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촌 기본소득 모델 구현 최적지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유부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착수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쟁점과 주요 현안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계획이다.

남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은 1조 474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7억 원 증가했으며, 남원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2,751억 원, 농업·수산 분야에 2,18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를 지탱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설명. 오는 16일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보건소,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고,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이나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마을 학교 사업설명회 진행

임실군이 지난 4일, 5일, 8일 총 3회에 걸쳐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마을학교’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설명회는 임실군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6 임실군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책자를 참여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1회차는 4일 청용면 복지회관에서 시작해 5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8일 임실을 행복나눔센터에서 이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6년 전리북도, 임실군 마을사업 안내를 비롯해 임실치즈마을 이진하 위원장의 ‘치즈마을 공동체 운영 사례’ 강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임실=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